네이버는 ‘아트’를 좋아해!

COLUMN

2012 / 02 / 26

ART I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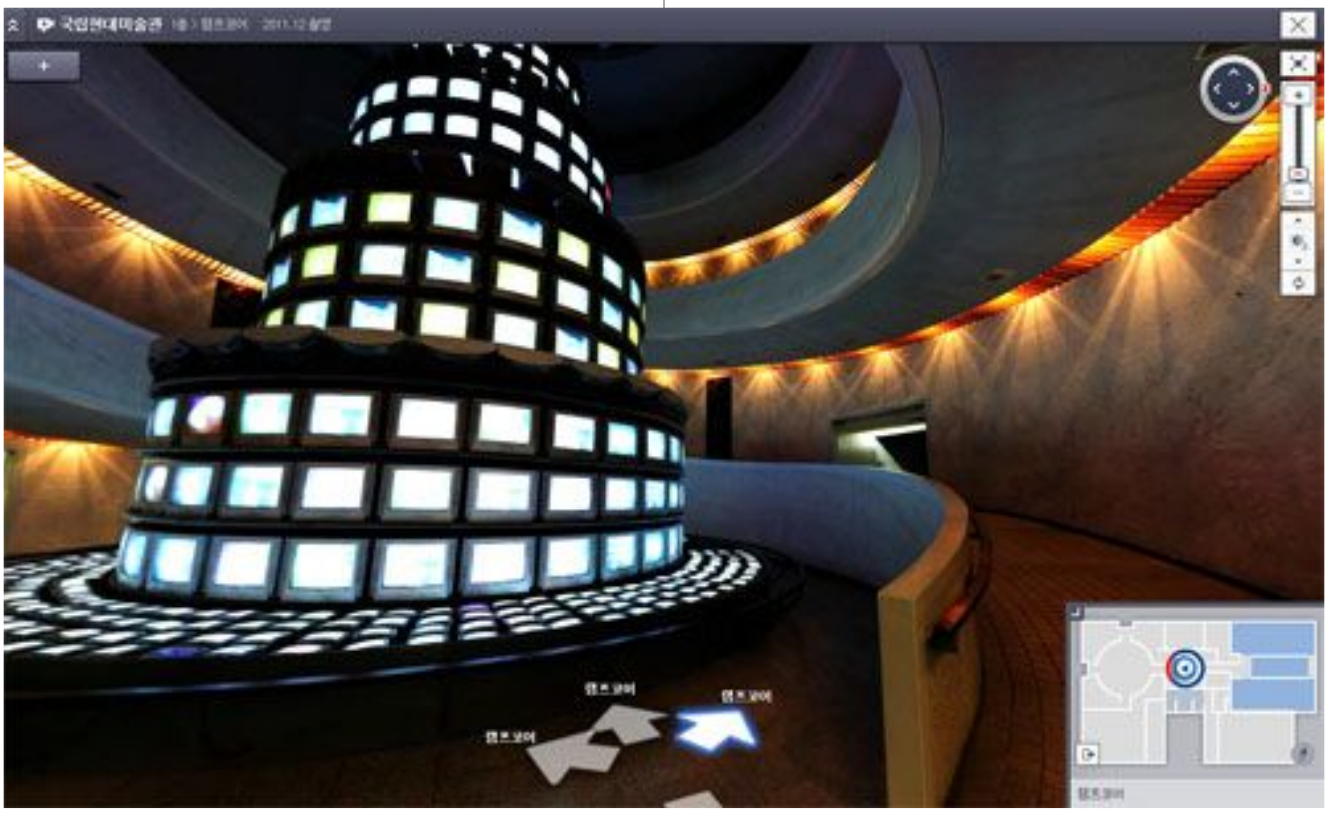
art in culture 2012년 2월호 암흑물질에 소개된 네이버의 다양한 미술 관련 서비스들을 artWA에서 만나보자.

<<art in culture 2012년 2월호(http://www.artinculture.kr/)>>

Naver Meets Art : 미술 검색부터 뮤지엄 뷰까지

지금 당장, 화가 피카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구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피카소’라는 단어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 생활의 일부가 된 지도 이미 오래다. 그 가운데 한국의 대표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http://www.naver.com/))’의 미술 관련 활약이 심상치 않다. 최근 ‘Naver Meets Art’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손가락 클릭만으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 지금부터 네이버의 친절한 미술 관련 서비스들을 차례로 살펴 본다.

글 | 장승연 기자



네이버 '뮤지엄 뷰' 페이지



네이버 '로고 아트 프로젝트'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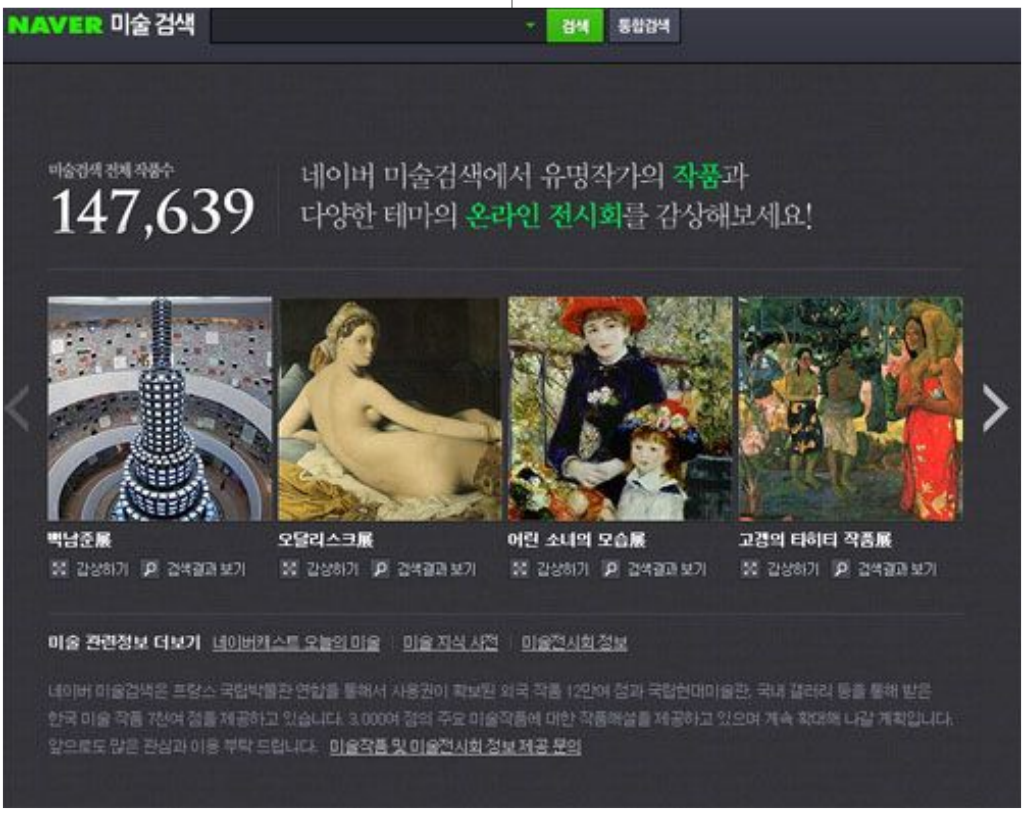
로고아트프로젝트‘작가와의 깜짝 이벤트’



작가 이동기의 네이버 스페셜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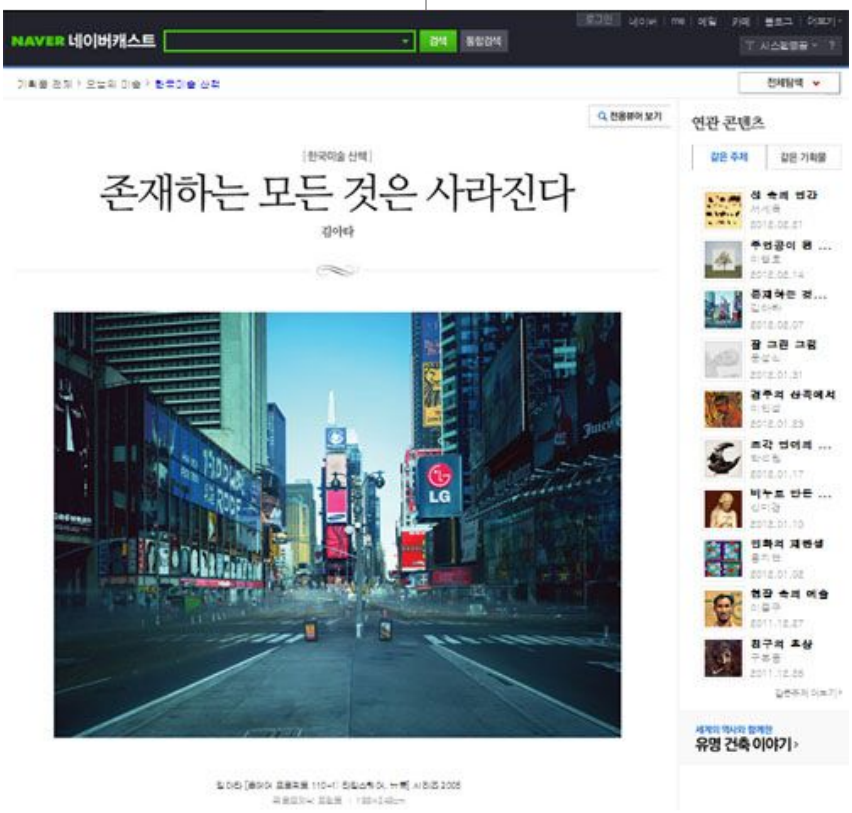
미술검색 '정보부터 이미지 디테일까지'

http://arts.search.naver.com(http://arts.search.naver.com/)
과연 언제부터 네이버는 '미술'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게 된 것일까. 이는 네이버의 본업인 '검색' 기능과도 관련된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때마다 요구하는 정보의 트렌드나 변화 등을 가장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 결과'는 해당 날짜와 시간에 한국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이슈로 통용되기도 하지 않는가. 심지어 《네이버 트렌드 연감: 검색어로 읽어 보는 대한민국 트렌드》도 발간한다. 이처럼 네이버가 보유하게 되는 검색어 통계는 시대의 트렌트와 이슈를 분석하는 주요 자료로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네이버 측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와 미술과의 만남'은 이용자들의 요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네이버 이용자들의 미술 관련 검색 횟수가 부쩍 늘었고, 이렇게 미술 저변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재고하게 된 것이다. 초반엔 주요 검색어의 대부분이 서양 명화나 작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국내 미술 관련 용어의 검색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네이버에서도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미술 관련 서비스들을 점차적으로 기획 실행하며 보폭을 맞추게 됐다.
'네이버 미술검색' 역시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미술 서비스 중 하나다. 현재 약 14만 5천 여 건의 작품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 작가별 사조별 연대별 등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검색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술검색 창에서 '이중섭'을 찾으면 약 170여 점의 작품 이미지와 캡션, 작품 설명 등이 나온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미지 확대 기능이다. 고화질 이미지가 제공되는 작품의 경우는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의 디테일까지 관찰할 수도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몇몇 유명 작가를 제외하고는, 서양미술사 명화 작품에 비해 한국 고미술 및 근현대미술 검색 자료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네이버 '미술검색' 페이지

네이버캐스트 ‘전문가가 펼치는 웹진’



네이버캐스트 '오늘의 미술' 페이지

뮤지엄 뷰 ‘실제 미술관에 온 것처럼’



2011KIAF 아트월 설치 장면

미술행사 후원과 다양한 프로젝트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까지’



네이버가 협력한 연말 나눔 캠페인 'Be Green, Go Green!'의 서울스퀘어 미디어캔버스 시연 장면